

발견자 조사는 조기에 격리시켜 질문

송재철

(치안본부 형사부 경감)

화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화재건물 거주자에 의해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야심할 때는 행상이나 행인, 방범원 등과 같은 경비, 순찰원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또 목조건물의 지붕같이 타기 쉬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물은 연돌에서 나온 불티가 날려 착화되더라도 상당한 범위에 걸쳐 지붕이나 시설물들이 타고 있는데도 건물내의 거주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행인이 먼저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다.

오래전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저녁에 셔터를 내린 백화점 내부에는 층별 경비원들이 1층에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4층 매장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1층의 셔터를 발길질하여 불이 났음을 알렸다.

경비원 4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나 4층에 채 오르지 못한 상태(10cm 못미처서)에서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가 서자 경비원 4명은 엘리베이터내에

간히게 됨으로써 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살길이 하나뿐인 불길속 매장으로 돌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3명은 소사하고 1명만이 중화상을 입은 채 비상통로를 통해 기어서 나와 구조된 일이 있다. 화재속에서는 대피시 서서 질주하는 것보다 몸을 낮추어야 살 수 있다는 사례가 되겠지만 내부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화재를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한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재건물의 거주자가 역시 시간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 뿐 아니라 확인에 대해 중요한 관전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견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발견상황과 발견동기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첫째 가능한 한 조기에 질문을 해야한다. 화재직후의 흥분상태에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가 본대로 말을 하지만 흥분상태가 가라앉고 자기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등을 의식하게 되면 말이 줄어들게 되고 신

빙성도 떨어진다.

우스개 소리같지만 불이난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더러 나오면서 무엇이라도 집어 들고 나오지 그냥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 더니 무거운 다듬잇 돌을 들고 나와서 하필이면 그 무거운 다듬잇 돌을 들고 나오냐고 하니 다듬잇 돌을 팽개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듬잇 돌을 든채 연기속으로 들어간 뒤 이도 저도 못가지고 그냥 뛰쳐 나오더라 말이 있는 것처럼 화급하고 흥분된 상황하에서라야 꾸밈없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다.

특히 조사자 입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견해가 누설될 경우에는 더 이상 진술을 듣기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발견자중에서도 시간차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발견자를 파악하여 이들로 부터 다각도로 발견한 상황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다.

통행인이 화재의 제1발견자 또는 조기발견자가 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성명, 주소, 직업등 인적사항을 메모해 두지 않으면 귀중한 자료를 놓치는 결과가 되

기 때문에 화재원인조사는 화재 발생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는 것이며, 둘째는 발견자들을 격리시켜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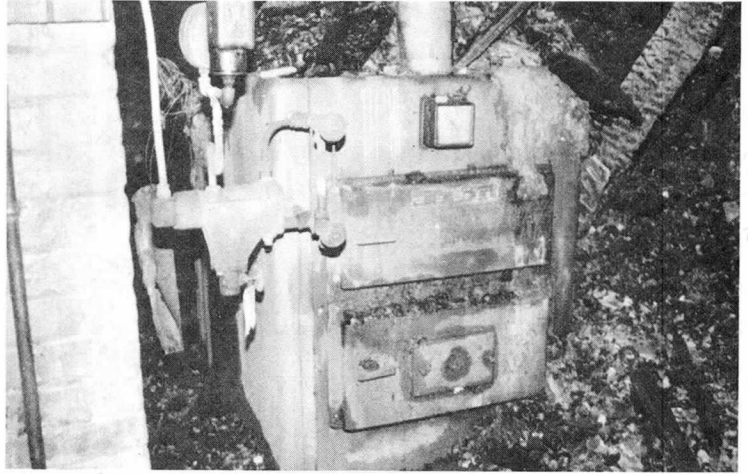
조기발견자가 화재전물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가족들을 격리시켜 발견상황을 청취해 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화재의 규모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게 될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발견상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발견당시 상황을 청취해 보면 우연히 그쪽을 보게 됐는데 “평”하면서 천정에서 불길의 솟더라는 것이 보통하는 얘기들이다. 즉 우연이라는 점과 “평”소리가 나더라는 점, 천정에서 불길이 솟더라는 점이 상황의 전부이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은 “평”소리가 났으니까 인화질물, 또는 전기가 튀는 소리와 결부시켜 전기가 아니겠나, 천정이라니까 전기가 아니겠나 하는 식으로 속단해 왔지만 “평”소리라 함은 인화질물의 인화현상으로도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인화물이 사용되거나 적치된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화물인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화된 후의 2차적인 연소현상인 경우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조사 이전에서는 “평”소리를 무열착화단계에서 발열출화나 개구부가 형성되는 단계의 과정인 후래쉬·오버(flash-over)단계나 과정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이다.

천정에서 불길이 나오더라는



얘기도 그렇다. 불길이란 위로 솟아 오르는 것인데 천정에서 불길이 나온다면 천정 바로 밑에서 불이 났다는 것인가 아니면 천정속에서 타다가 천정이 발소(拔燒)되면서 보이게 된 것인가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천정속의 불이 천정 바닥 발소로 보인 것이라면 이 불은 이미 연소의 상승성때문에 지붕 밖으로 출화되어 발견되는 것이 먼저 순서일 것이다.

물론 천정속 화재라면 그 원인이 전기적 문제 검토에 비중이 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정 바로 밑에서의 불이란 생각할 수 없다. 불이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천정에는 파리밖에는 앉을 수 없다. 있다면 인위적인 방화(또는 농화 포함)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연소(延燒)를 의식하고 한행위라면 천정이란 곳만으로는 착화후 연소(延燒) 계속의 확실성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적당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장이란 것에 집착해선 안되며 입체적인 발화부에서의 확인판단을 위해 방바닥부

위인 저면부로부터의 연소확대 경과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영업결에 보게 된 화재현상을 화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발견자들에게 현상적으로 설명을 듣는다는 점은 어려우므로 최초로 불을 발견한 위치, 발견당시에 있던 위치와 하던 일, 발견하게 된 동기와 발견하고 난 뒤의 행적상황, 발견위치에서 화재전물의 윤곽이나 가시범위등을 재현시켜 검토하고 당시 연기나 화염의 양과 색깔등을 간략히 구분하여 급속발열현상인지 완소 또는 훈소(燻燒) 발화현상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큰 기대를 욕심낼 수는 없으나 연기나 화염의 분출위치, 크기, 소리, 냄새, 색깔 등도 메모해 둬으로써 가연물에 따라 연소음, 연소냄새, 연소색이 다른 특유한 성질에 의해 착화물의 종류나 연소(延燒) 매개물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